
大韓氣功醫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KIGONG MEDICAL SOCIETY

VOL. 2. NO. 2. 1998.

大韓氣功醫學會

● 醫療氣功 韓醫師의 專門領域임을 認識하자.

우리 韓醫學·漢方醫療의 기초과학적 생명관의 주체인 精·神·氣·血의 이론에 입각하여 氣는 곧 韓醫學에 있어서 뭇래 뭇 수 없는 韓醫學의 根幹을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針灸治療는 鍼과 灸를 이용하여 인체의 氣血循環을 조절하여 治療에 이용하는 방법이며, 韓方藥物療法은 藥物이 가진 氣味를 이용하여 인체의 陰氣와 陽氣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治療法입니다. 이처럼 韓醫學의 치료법은 모두가 氣를 조절하는 調氣療法임에 한의학은 곧 調氣療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학진흥육성법(안)에 대한 입법추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氣醫學을 몇몇 기관권 종교단체, 사이버 단체에의 전문영역으로 인정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전통한의학을 왜곡하고 무분별한 유사의료업자를 양성하여 국민의료 질서를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요소라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氣功學을 좀더 體系的으로 연구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도 추가되어 氣功學을 醫學的으로 연구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調氣療法을 통해 氣를 사용하여 治療를 하고 있는 한의사 스스로 氣功學이 韓醫學 및 韓醫師의 전문 영역임을 인식하여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氣功醫學會의 어깨가 더욱 무겁고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氣功醫學會의 이번 學會誌 第2卷 2號의 발간은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더욱 더 醫療氣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氣功學이 韓醫師의 專門領域임을 확고히 하는데 선도기능을 발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 11.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최 환 영**

發刊辭

傳統 氣功醫學을 확립하자.

氣功이란 말은 新中國 성립후 唐山에서 처음으로 氣功療養所를 연 劉貴診씨가 1954년에 많은 古文獻을 조사하고 종래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던 것을 통일적인 학술용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즉 氣功이란 용어는 1954년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그 이전에 養生法, 吐納법, 導引按蹻, 內丹法 등이 氣功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불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기공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기공의 본거지가 되어 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의 기공연구는 많은 과학연구 영역이 관련되어 있는데, 가령 의학, 생리학, 물리학, 심리학 등이며, 이러한 과학 영역과 관련지어 70년대 들어서는 林厚省이 방출하는 氣를 현대 과학기기로 측정함을 성공함으로써 그 때까지 門外不出이라는 낡은 인습과 세상의 편견 때문에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던 流派의 秘法, 秘術이 앞다투어 소개되는가 하면 옛 功法들을 토대로 새로운 공법을 내놓는 일이 橫行하였습니다. 요즈음의 기공 세미나는 이미 기공사나 기공의사들이 功法이나 임상효과를 연구하는 단계에서 떠나 최첨단의 과학인 핵물리학자나 생화학, 생물리학자들이 기공이 과연 유전자 단백질(DNA)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냐는 쪽에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超能力의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잠재능력의 개발, 知能功의 개발, 特異 功能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공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많은 기관단체들이 형성되었고 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발맞춰 정부는 '정신과학진흥육성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단체들의 개입으로 인해 변질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氣가 우리 한의학의 傳統的인 치료에 根幹을 이루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였으며, 무분별한 유사 의료업자의 양성으로 국민의료에 위해를 끼침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의계는 '氣'의 규명이나 연구에 소홀

히 하여 이 분야가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기현상을 무조건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임상 효과라도 빨리 연구에 착수하여 그 실체를 벗기고 새로운 기의학의 설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기공을 임상적으로 응용하는데 있어서 중국에서 들여온 기공학의 답습과 모방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전통적인 氣功醫學을 확립함에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본래 氣功의 源流가 중국이라고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기공의 본류는 白頭山 民族이며, 白頭山을 근간으로 발달한 것은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仙家の 기원을 廣成子로 보고 있는데, 《莊子·外篇》에 광성자가 空同山에 기거하면서 黃帝가 道를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 공동산은 靑丘에 있고 요동에 가깝다 하였고, 요동은 예로부터 神跡이 많은 곳이었다고 하였으니 선가의 기원, 곧 養生法 및 현재의 氣功의 원류는 우리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공의 本流인 우리의 전통 양생법을 발굴하여 그것을 한의학의 치료법에 접목하여 한국의 傳統 醫療氣功을 설립함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氣功醫療는 반드시 직접 몸으로 修練이 되어, 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일정의 功力을 가져야만 시술이 가능한 특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련 단체들이 수련을 통해 얻은 공력으로 검증 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행할 때, 그들을 통제할 만한 功力을 韓醫師가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한의학 고유영역인 氣醫學을 非醫療人인 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의사들도 이제는 氣修練을 해야만 調氣療法인 한의학의 治療法을 좀 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氣功師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의료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번 학회지 제2권 2호의 발간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기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학의 기초분야로 인식이 되어, 중국식의 답습과 모방에서 벗어난 한국 한의학식의 전통 기공의학으로 확립될 것을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끝없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학회 기공의학회 회장 김 기 옥

大韓氣功醫學會誌

第2卷 第2號

1998年

大韓氣功醫學會

目次

醫療氣功 韓醫師의 專門領域임을 認識하자... 1

發刊辭 3

臨床論文

- 外氣治療時 得氣感에 關한 臨床的 考察
이현경 · 김경환 · 윤종화..... 7
- 心積과 腎積에 對한 臨床的 考察
이재흥 · 지정옥 · 김경요 · 이기남 15

文獻考察

- 近代氣功에서의 意念法
윤나다 · 김경호 33
- 氣功鍛鍊의 人體生理作用에 對한 現代科學的研究 側面의 考察
김준한 · 안병상 · 류영수 51
- 放鬆功에 關한 考察
손정희 · 김나영 71

- 佛敎氣功에 대한 考察
이승기 · 김광호 · 필감매 101
- 周易과 氣功의 相關性에 관한 考察
김경욱 · 김길수 · 김종화 · 구병수 133
- 醫療氣功에 대한 考察
이은미 · 박은정 · 유창순 153
- 九鍼에 關한 研究
정기진 · 조현석 · 윤종화 185
- 中國 歷史 初期時代의 氣功養生家의 思想 및 功法에 대한 考察
안훈모 · 길호식 · 김광호 201

大韓氣功醫學會 會則 225

중앙 위원회 명단 및 주소록 229

지부장 명단 및 주소록 230

대한기공의학회 명단 및 주소록 231

학회지 논문 투고 요령 237

기공을 수련한 의료인을 모집합니다..... 238